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 1492억

2500여농가 안정적 소득 보장 · 6만여명 고정고객 확보

완주군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누적 매출액이 1492억원에 이르면서 2500여 농가에게 연 1200만원에 가까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6만여명의 고정고객을 확보하는 등 대표적인 도농상생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2일 완주군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지역농협과 완주로컬푸드 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12개 로컬푸드 직매장(임시개장한 혁신도시 농식품마켓 포함)의 총 매출액은 1492억7200만원이라고 밝혔다.



용진농협 직매장 개장(2012년 4월 27일)과 효자동 직매장 개장(2012년 10월 31일)로 첫 발을 내딛은 로컬푸드는 첫 해 54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후 매년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 매출액 실적을 보면 2012년 54억2000만원, 2013년 195억2300만원, 2014년 353억원, 2015년 414억3500만원, 2016년 447억4900만원 등을 기록했다.

이 중 용진농협 1호 직매장과 효자동 직매장은 2015년과 2016년에는 매년 90억원을 상회하는 매출실적을 보이면서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이 밖에 지역내 4개 농협이 운영하는 4개 직매장도 누적 매출액이 297억원을 기록하는 등 선전하고 있다.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은 완주군 내 2500여 소규모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6만여명의 고정적인 도시 소비자까지 확보하면서 도농상생의 롤 모델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12개 직매장은 현재 납품에 참여하는 소규모 농가에게 연 1193만원의 매출을 올려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매출액은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의 매출액은 앞으로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나서

관련 법률 시행 홍보 만전

무주군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실거래가 신고), 외국인토지법(외국인 토지취득 신고·허가), 국토계획법(토지거래계약허가) 등 개별법으로 시행되던 법률이 통합되면서 제정된 것으로, 부동산 매매, 주택 분양권·임주권으로 한정하던 실거래 신고 대상이 주택·상가·토지 등의 최초 분양 계약과 분양권 전매로 확대됐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외국인도 기존의 토지 취득·보유 신고 외에 건축물, 분양권 부동산 거래까지도 신고해야 한다.

한편, 부동산 거래신고·허가와 관련, 부당한 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

람은 과태료를 감면받는다. 조사 전 신고하면 과태료 전부를, 조사 후에는 50%까지 면제를 받는데 법 시행 전 위반행위라도 자진 신고하면 감면 대상이 된다.

민원봉사과 토지관리 담당 김연흥은 "불법 행위를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적발이 어려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부동산 허위신고를 막기 위한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의 일반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직업업, 지방공단 등일 경우 국가 등의 부동산 거래 단독 신고가 의무화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경로당 운영비 확대 지원

진안군은 2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와 간식비를 경로당 규모에 맞게 보다 현실화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경로당 328개소에 대해 경로당 회원수에 따라 운영비와 간식비를 지원해 오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보다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올해 1분기부터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경로당 지원금 상향 조정에 따라 개소 당 최저 연 8만원에서 최고 23만원까지 늘어나며 올해 운영비지원액은 3억 8,000만원으로 경로당 운영에 보다 형평성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로당 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경로당 회장과 총무를 대상으로 경로당 보조금 사용 안내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로당 보조금 사용내역을 마을 게시판에 알려 경로당 회원의 알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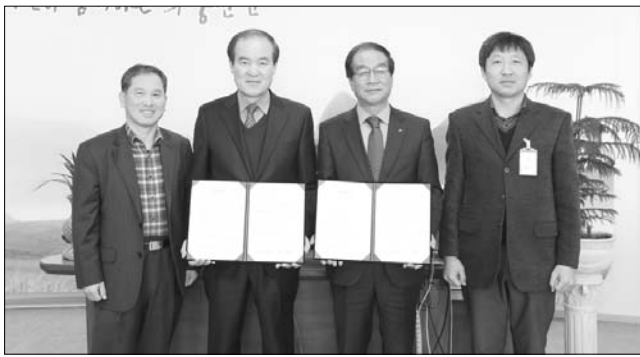
진안군, '몸짱 만들기' 참여자 모집

진안군보건소(소장 이승호)는 '몸짱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대상자를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 프로젝트는 대사증후군 탈출을 위해 3개월간 한의사가 개별적이고 집중적으로 한의학적 건강양생법으로 관리한다. 또한 영양사와 운동지도사의 운동과 영양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참여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5가지 사전 검사(복부비만,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혈압, 공복혈당)를 통해 3가지 이상이 기준치가 넘는 대사증후군이 있는 65세미만의 지역주민이다.

이승호 보건소장은 "보건소의 통합건강 증진 프로그램 중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이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홍삼연구소-군산림조합, 기술개발연구 협약

동부권 임산지원 고부가가치화 공동연구

(재)진안홍삼연구소는 2일 진안군산림조합(지부장 전해석)과 임산물 연구를 위한 기술개발 협약을 군수실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도내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임산물을 활용하는 가능성 제 품을 개발하고 산업화하여 소득으로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양 기관이 재배농가 교육, 상호 위탁교육 등 지속적인 협력으로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는데 공동연구하기로 했다.

이항로 군수는 "진안홍삼연구소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임산물과 약용작물 중 100여 종의 소재를 선별하여 면역력 증진, 체지방 개선, 뇌기능 개선 등 가능성 평가와 효능·지표성분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홍삼한방특구에 걸맞은 새로운 기능성이 입증된 다양한 토종 약재를 발굴하여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식품산업화 기반을 마련해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5년 연속 기획공연 공모 선정

국비 3500만원 확보 5번째 창작뮤지컬 제작



완주군은 한국문화재단연합회가 주관한 '2017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서 5년 연속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국비 3500만원을 지원받아, 앞으로 총 75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 5번째 창작뮤지컬인 '아홉 번 사는 고양이' 제작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제작되는 공연은 봉동읍의 구바우 설화를 스토리텔링한 작품이다.

특히 봉동읍 생강의 시초설화인 구바우 이야기에 아홉 번 사는 고양이 등장시킴으로써, 유머와 풍자, 동화적 요소를 섞은 재미있는 뮤지컬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민이 주연배우로 참여하는데, 배우 오디션을 실시할

계획이다.

완주군은 그동안 지역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동시, 주민을 공연 능동자로 참여시켜 지역공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왔다.

그간 완주군은 운주면의 선녀와 나무꾼 설화를 바탕으로 한 국악 뮤지컬 '선녀와 나무꾼'을 비롯해 이서면 설화인 공쥐발췌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창작뮤지컬 '신공쥐 발췌'를 공연에 올렸다.

또한 삼례지역을 스토리텔링한 어린이 뮤지컬 인형극 '여시코빠

기', 용진면 국악명창 권삼득 이야기 등을 바탕으로 한 창작 창극 '내 소리 받아 가져라' 등의 공연도 펼쳤다.

박성일 군수는 "완주군에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공연으로 탄생돼 현대에 새로운 가치로 조명 받을 수 있어 기쁘다"며 "공모선정을 통한 이번 공연제작이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완주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군, 대전~통영간 고속도 광고탑 새단장

장수군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변에 위치한 광고탑이 노후 돼 3천여만원 들여 상행선과 하행선의 홍보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고 조명 또한 환하게 조도를 높였다.

군 홍보 광고탑은 고속도로변에 설치돼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차량을 이용하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고른 광고효과가 있어 내용 개선을 통

해 장수군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광고탑은 가로 13m, 세로 7.5m의 광고판으로 상행선에는 한우, 사과, 오미자 이미지를 하행선에는 뜰방샘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광고를 통해 군은 금강의 발원지로서 청정지역 이미지와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고려해 홍보 노출빈도를 높일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또, 군은 앞으로도 장수군 농특산물 및 군 이미지 홍보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높이고 농가소득향상과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한국회 기획조정실장은 "홍보 광고탑 이미지 및 조명 교체를 통해 장수군의 브랜드를 고취시키고 전국적으로 우리지역의 믿고 먹을 수 있는 농특산물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관내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

6일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무주군이 오는 6일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일구고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관광지, 2017 무주 WTP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로서 손색없는 태권도성지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 이태현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안전관리 추진단(무주군청 17개부서)과 전기, 건축, 가스, 소방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관리추진단이 함께 관내 위험시설(시투박·특정관리대상 C·D·E 등급 7개, 해빙기 시설 55개, 기타 43개) 105개소와 일반시설(시투박·특정관리대상 A·B등급 84개, 기타

251개) 335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진단은 공공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민간시설들에 대한 점검과 지역실정, 시설의 위험도에 맞는 자체 안전점검을 강화하는데 집중할 계획으로,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생활 주변 위험 요소들을 찾아 공유·조치하는 안전문화운동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안전재난과 안전총괄 담당 김규영은 "안전점검 소홀로 인한 인재를 막고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일깨우는 안전진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안전진단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군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체육회 대의원총회



진안군체육회는 2일 2017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진안군체육회(회장 이항로)는 2일 이항로 군수, 종무별 가맹단체 회장단 등 17개 체육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총회를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6년도 사업결과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년 사업계획,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 2017년 군민의 날 체육대회 추진 승인의 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체육회의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항로 회장은 "진안 체육을 이끌고 계신 여러분들의 관심과 열정으로 지

난해 체육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뤄냈다"며 "체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군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앞으로도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최

장수군의회(의장 유기홍)는 2월1일부터 2월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76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17년도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청취하게 된다.

임시회 첫날인 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과 장수군수로부터 2017년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에 대해 청취했고, 보건사업과, 의료 지원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요업무에 대한 청취를 한 후 2월 6일 제

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유기홍 의장은 개회사에서 "금번 임시회는 2017년도 군정에 대한 실천계획을 청취하고, 그 계획을 논의하며 점검해 보는 중요한 임시회인 만큼 의정과 군정발전을 위해 수립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이희숙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 협의회 규약안' 등 3건의 안전과 김용문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장수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안전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파출소, 범죄우려지역 합동순찰

장수경찰서(서장 전준호) 장수파출소는 지난 1일 야간에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관내 청소년 탈선예방 및 범죄우려지역을 집중 순찰했다.

이날 합동순찰은 장수읍 방촌동, 노하리 숲과 공설운동장 등 범죄에 취약한 지역을 합동으로 순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가로등이나 방범CCTV가 없는 장소 등 범죄사각지대를 순찰하는 등 청소년 탈선예방활동을 전개했다.

김홍근 장수파출소장은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주기적인 야간 순찰활동을 통해 범죄를 조기에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